

벤투호와 A매치 '브라질전이 남긴 것'

시작도 끝도 네이마르 흥행의 키는 슈퍼스타

가장 일찍 입국...8일간 스포트라이트
1조3360억 몸값 브라질대표팀보다
백화점·남산·놀이공원·강남클럽 등
네이마르 일거수일투족 연일 화제
협회관계자 "스타=흥행 확인한 기회"



그동안 경기 2~3일 전에 입국했던 다른 팀들과 달리 브라질은 지난달 26일 일찌감치 내한해 관심을 모았다. 그들은 훈련과 더불어 관광으로도 알찬 시간을 보냈다. 용인의 테마파크를 찾은 히살리송(왼쪽 사진 아래)과 네이마르(왼쪽 사진 2번째 줄 왼쪽), 남산 N서울타워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네이마르(오른쪽) 등 브라질 스타들의 일거수일투족은 방한기간 내내 화제를 뿌렸다. 사진출처:1코스모진여행사 인스타그램·YTN 화면 캡처

축구는 팀 스포츠다. 특정 선수가 홀로 빛을 발하는 것은 그다지 긍정적 현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슈퍼스타가 끼치는 영향은 대단하다. 우리가 '손세이셔널' 손흥민(30·토트넘)에게 열광하고 밤을 새워가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경기를 TV로 시청하는 이유다.

과거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7·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유벤투스(이탈리아) 소속으로 K리그 선발전과 프리시즌 친선경기를 위해 방한한 뒤 이른바 '노쇼' 사태를 일으켰을 때, 팬들이 호날두의 퍼포먼스를 볼 수 없었다는 사실에 깊은 실망과 엄청난 분노를 표출한 것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2022년 6월 2일 '삼바군단' 브라질이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파울루 벤투 감독(포르투갈)이 이끄는 한국과 친선경기를 펼쳤다.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스포츠팀인 축구국가대표팀과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위의 만남은 그 자체로 폭발력이 대단했다.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브라질은 말 그대로 스타군단이다. 세계축구계의 시장가치를 전무로 다루는 트랜스퍼마크트에 따르면, 브라질 대표팀의 몸값 총액은 10억 유로(약 1조3360억 원)에 달한다. 잉글랜드, 프랑스에 이은 3위다.

그 중에서도 집중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이는 네이마르(30·파리 생제르맹·PSG)였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가장 유명하기 때문이다. 약 300만 달러(약 37억5000만 원·추정치)의 거액을 들여 브라질을 초청한 대한축구협회(KFA)도 2일 친선경기를 홍보하면서 네이마르를 빠짐없이 언급했다. 축구를 즐기지 않는 대중에게 '팀' 브라질보다 '개인' 네이마르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였다.

브라질 선수단의 방한 행보는 과거와 달랐다. 명성이 자자한 대부분의 팀들이 길어야 경기 2~3일 전쯤 입국해 간단하게 몸을 풀고 실전에 나선

데 반해 브라질은 지난달 26일부터 순차 입국해 빠른 적응에 나섰다.

입국 장면도 남다른 기운이 느껴졌다. 출국지역이 다른 일부를 제외하곤 대개 대표팀 전원이 한꺼번에 들어오지만, 브라질 선수들은 상당수가 개별 입국하는 형태를 취했다. 네이마르는 가장 빨리 입국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국내체류 중 보인 모습이다.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각종 축구 게시판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거의 실시간으로 공유된 가운데 백화점을 찾고, 서울의 관광명소 남산을 방문한 것도 부족해 경기도 용인의 테마파크에서 어린이처럼 마음껏 뛰어놀아 눈길을 사로잡았다. 서울 강남의 클럽에서 젊음을 만끽했다는 것도 흥미로운 뉴스 소재가 됐는데, 네이마르가 동료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고 클럽에서 가장 비싼 와인을 주문했다는 뒷이야기까지 곁들여져 더욱 화제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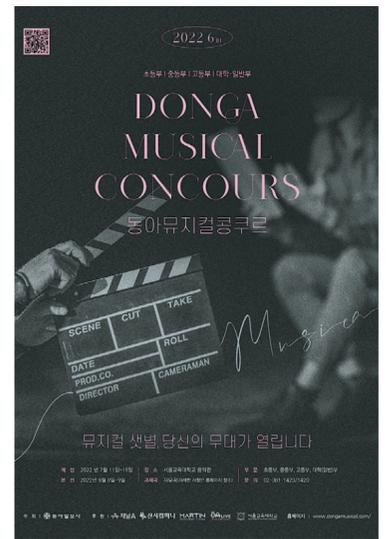
네이마르는 경기 당일까지도 화제의 중심에 섰다. 전날(1일) 팀 훈련에서 미니게임을 하던 도중 동료와 충돌해 오른 발등이 부어올라 그의 '출전 여부'는 키오스크 순간까지 이슈였다.

KFA 관계자는 "브라질전은 '스타=흥행'이라는 진리를 새삼 확인한 기회였다. 스타 선수의 유무에 따라 경기 흥행이 좌우된다는 것을 네이마르와 브라질을 통해 다시 배웠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삼남 |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삼바군단' 브라질의 내한 효과는 대단했다. 세계 최고 공격수인 네이마르(사진)를 비롯해 비니시우스, 히살리송, 마르퀴노스 등의 행보는 매 순간 화제를 불러 모았다. 2일 한국전을 앞두고 지난달 28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된 팀 훈련에 참가한 네이마르. **고양 |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알립니다



제6회 동아뮤지컬콩쿠르 포스터

"뮤지컬 예비스타 모여라!" 동아뮤지컬콩쿠르 스타트

7일부터 23일까지 접수...7월11~15일 예선
입상자엔 '백스테이지투어' 등 특전 제공

"뮤지컬 셋벌들 모두 모여라!"

대한민국 뮤지컬계를 이끌어갈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동아뮤지컬콩쿠르가 '준비된 예비스타'를 모집합니다. 올해로 제6회째를 맞는 동아뮤지컬콩쿠르는 7월 예선에 앞서 6월7일부터 23일까지 참가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동아뮤지컬콩쿠르는 한국 뮤지컬 발전을 주도해 온 신시컴퍼니와 손잡고 다양한 특전을 마련했습니다. 본선 최종 입상자에게는 '동아 라이징 스타 백스테이지투어'와 스타프와의 만남 기회를 제공하고,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에게 유명 뮤지컬 음악감독의 지도를 받는 '뮤지컬 앙상블 마스터 클래스' 참가와 '웹뮤지컬 현장 캐스팅' 출연 기회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동아뮤지컬콩쿠르 수상자에게는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상'과 함께 참가자 연기 장면 등을 NFT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미래 K-뮤지컬 스타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 참가신청: 6월 7~23일, 홈페이지 접수(www.dongamusical.com)
- 일정: 예선 7월 11~15일, 본선 8월 8, 9일
- 부문: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대학)부
- 장소: 서울교육대학교 음악관
- 문의: 동아일보사 문화기획팀 02-361-1420, 1423
- 주최: 동아일보
- 후원: 채널A, 신시컴퍼니, MARTIN, O'ALIVE, 서울교육대학교

피로 지킨 대한민국, 호국영웅의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현충일인 6월(월)자 신문 쉽니다. sportsdonga.com 뉴스서비스는 계속됩니다.

■ 상담 및 문의 : 031-741-1879

꿈꿔왔던 그곳! 몽골
자유여행 8일!

849,000원~

몽골 무사증 기념
이벤트 상품

광주 스카이박스
+
광주/신안 1박2일

129,000원 → 119,000원

VIP야구관람하고
광주/신안 관광까지!

실속특가

929,000원 → 849,000원

- 6/13,14,20,21 출발 단 4회
- 왕복항공권, 1급호텔 2인1실, 공항샌딩 및 가이드, 코리아+뉴아시아+베버리 그린피 포함

품격특가

1,299,000원 → 1,139,000원

- 6/8,15,22,24 출발 단 4회
- 왕복항공권, 특급호텔 2인1실, 공항샌딩 및 가이드, 미모사+선벨리+코리아 그린피 포함

필리핀 크락
3박5일

골프투어
기획특가

